

# 회의록

회의명	2022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일시	2022. 9. 23.(금) 10:30
장소	중회의실(3층)
참석자	○ 총 인원: 10명 ○ 참석인원: 9명
회의진행순서	개회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위원소개 ⇨ 인사말씀 ⇨ 부위원장 지명 ⇨ 2023년 해운대구 생활임금 심의 ⇨ 토론 ⇨ 폐회
<b>심의안건</b> 1. 2022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 결정	
<b>발언내용</b>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을 희망하시는 분 있으신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해운대구의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원영숙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영숙위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원영숙 위원: 네, 수락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 10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생활임금제 개요 설명(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위원장: 오늘 회의는 간사의 제안 설명 후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안건 제1호 ‘2022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 결정(안)’입니다.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을 평균,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단순 노무종사원 일급, 부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 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1안은 3인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과 빈곤기준선을 고려 시급 10,948원으로 책정하였고, 제2안은 부산시 물가상승률과 중소기업 노무비 인상률 평균을 고려하여 11,006원, 제3안은 최근2년간 생활임금 인상률 평균과 부산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1,053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계획에 따른 인건비가 구비로 지원되는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2023년 기준 846명 내외입니다.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의거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나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안건 1호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질이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구의 2021년 불용액이 650억입니다.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고, 인근 수영구도 부산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니 따라가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3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구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겠지만, 3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안에 동의합니다.

●●●: 최저임금이 5% 상승되었으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고, 부산시 생활임금 상승률 1.9%보다 상승률이 높은 3안에 동의합니다.

◇◇◇: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를 고려했을 때, 3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임금을 산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니, 내년에는 위원회 전 사전 만남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토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 ■: 구 재정상황 및 다른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향후 부산시 수준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은 의결서에 의사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2023년 해운대구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는 참석위원 9명 중 동의 9명으로 제3안으로 결정되었으며 11,053원 이며. 적용대상은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입니다.